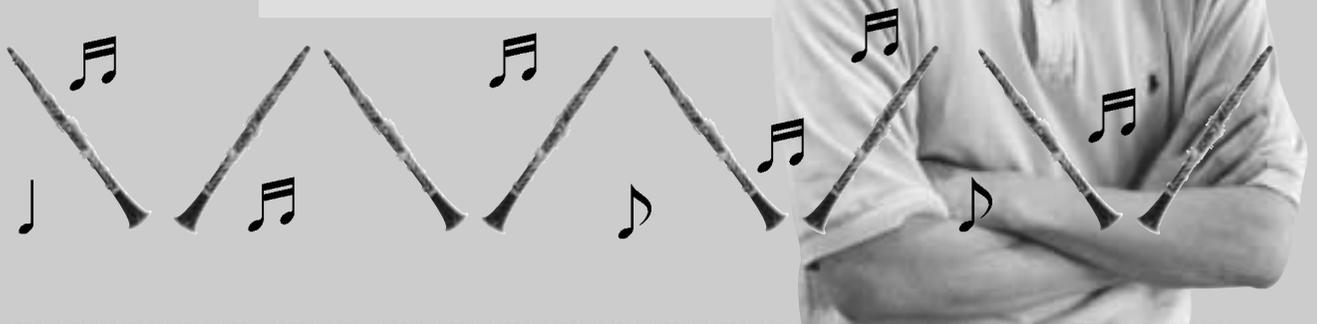


삶을 풍요롭게 하는 클라리넷 연주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 소곳하고 차분한 듯 하면서도 어느 순간 극적인 열정을 토해내는 악기 클라리넷. 정밀공작기계 전문 제조업체 '티보테크' FA사업본부에 몸담고 있는 김찬봉 본부장 역시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는 그만의 열정을 유감없이 발산하는 열혈남이 된다.

그가 클라리넷을 처음 접한 것은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91년, 같은 교회에 다니던 조부환 교수를 만나면서부터다. 대학에서 클라리넷을 가르치는 조교수를 통해 중학교 때 음악선생님의 연주를 듣고 가슴 떨려하던 사춘기 소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클라리넷 연주를 시작한 지 무려 10여 년이 지난 지금, 대를 이어 그의 아들도 조교수에게 지도를 받고 있다. 인연도 보통 인연이 아닌 셈이다.

“클라리넷은 그 소리만으로도 큰 매력이 있는 악기죠.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쯤 있다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는 클라리넷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회사 내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클라리넷 부는 연구소장’이란 별명까지 붙었다. 항상 미소 띠는 표정으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풍기는 그는 국내 CNC(공작기계 정밀제어컨트롤러) 기술력을 이끄는 핵심 인재이다. 얼마 전에는 국내 최초로 이 분야에서 신제품을 출시해 기술독립군의 선봉장 역할도 훌륭하게 해냈다.

부드러움 속에 감춰진 강함이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일상에서 부담감도 크고 일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쓰일 듯하지만, 그는 주말마다 클라리넷을 연주하며 여유를 찾는다고 한다. 교회 관현악단에서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고 회사 동료들의 결혼식이라도 있는 날엔 기꺼이 클라리넷 연주로 분위기를 띄워주기도 한다. 특히 그의 스승인 조부환 교수의 연주회 때는 아들과 함께 축하 연주를 선보여 그간의 같고 닮은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이렇듯 클라리넷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인 동시에 그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갖는 것도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라면 더욱 좋겠죠. 저 또한 아들과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어 무척 든든합니다.”

김본부장은 자신의 연주에 만족할 때까지 안내심을 가지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미있게 해볼 만한 취미가 바로 클라리넷 연주라고 말한다. 단, 기초는 될 수 있으면 클라리넷 전공자에게 충실히 배우는 게 좋다는 충고를 잊지 않는다. 앞으로 목관5중주단 같은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김찬봉 본부장.

앞으로도 클라리넷으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있을 그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